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로마서 14:17 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 :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 타이틀인지 모르지요. 천국!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세상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닙니다. 하나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부터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 가시기 전날 밤에도, 나의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신 둘째 사람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14 :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오신 지극한 복락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는 교인간의 불화, 가족간의 불화로 인한 마음의 풍랑은 없는가요?

행복이 없이 불만가운데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 이 풍성한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 속에 이루어져 불만도, 마음의 풍랑도 없다” 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행복한 신앙 생활을 위해 꼭 부족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 :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성령께 거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풍랑이 일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굴복하면 싸움이 없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풍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굴복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납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심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납니다.

에베소서 3 :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 :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우리 신앙 생활의 적용에까지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I.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정의

영원 안에 감추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현재의 시간 속에 실제로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간 안에 들어 오게 되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시간 안에 들어 오심으로 가능케 되었다.

역사 안에 들어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신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 안에 들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현재에 역사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현재의 세계에서 왕이심을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왕이십니다.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현재의 시간 속에 들어 오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But if it is by the Spirit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NRSV)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헬 phthano 로서 already attain 입니다. 이미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라고 하여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Fulfillment)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Consummation)를 향하여 역사안에서 진행되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Fulfillment)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의 성취(Consummation)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II.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Consummation)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나라가 완성되었지만, 메시아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 나라의 완전한 성취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사단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 : 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운 후 성취된 메시아의 나라인 신천신지가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자들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사망이 극복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 :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신천신지에서 발생할 일이, 지금 부분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 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일이,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고편처럼 부분적으로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극한 행복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 :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현재이나 장래에 받을 지극한 행복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누리는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 :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아! 성령의 소욕에 굴복하라!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III.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취 사이에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위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만이 가지는 위대한 경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은 재림 후 있을 일이지만,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미래에 있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현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3 :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 :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 :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구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 것은, 내세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3 :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 :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 :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나라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개인에게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세에서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경험하는 하늘 나라의 기쁨은 개인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은 하였지만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그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위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차이와 레벨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행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 :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셔서 손위에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다해 보겠다고 열심히인데, 그런 것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천국의 즐거움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가장 많이 누리야 합니다.

IV.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메시아로서 오신 분입니다. 일반적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왕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 :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 :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왕이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고 진리의 왕, 영적 왕국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카톨릭이 이것을 곡해하여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교황과 세상 제왕은 누가 세상의 최고 권력을 소유할 것인가를 놓고 오랜 세기동안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을 잡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진리의 왕이라고, 세상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날은 물질 구득이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의 메세지가 온갖 세상적 축복으로 넘칩니다.

이것은 카톨릭이 저지를 오해를 개신 교회가 그대로 저르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진리의 왕이라고, 세상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왕국, 진리의 왕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결코 이루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인 예수님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깨닫는 만큼,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성도들이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설교자는 복있는 설교자입니다.

1.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깃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몸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인성에 의하면 괴로웠지만 그는 성령님께 굴복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영혼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못밖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밖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사도 바울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 안에서 하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1 : 23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 :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고린도후서 11 :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 :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1 :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삶의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양으로 보기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굴복한 상태,
이것이 바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보다 아무 것도 없어도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바울의 기쁨과 평안, 위로는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을 통치할 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지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속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할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난의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눅 17:21)”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천국은 현재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V.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 :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요한복음 16 :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내 기쁨, 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것을 충만히 주시겠다고 하시며, 우리로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 :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굴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소욕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원수마귀 손뭇대고 환란 풍파가 없습니다. 만세반석 안에 있습니다.

시편 91 : 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 : 5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시편 91 : 6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 :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이 온전히 굴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자자손손이 잘되는 축복과

교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